

“교육공동체 안정감 유지 무엇보다 중요”

김승환 교육감, “코로나19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전북지역의 모든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되 과소대응은 경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결정한 개학 연기는 그대로 따르되 교수학습 이외의 활동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보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학부모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도교육청 소속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의 휴업 및 개학 연기가 결정됐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 연기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지역 유치원 31곳, 초등학교 20곳, 고등학교 1곳도 2월 24~29일까지 예정됐던 학사일정이 금지됐다. 또 개학일은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한편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



전북지역의 모든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칙’을 강조했다.

모 희망시 운영토록 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장은성기자

전주대 류인평 교수 관광경영학회 회장 선출



전주대학교 류인평 교수(관광경영학과)가 관광경영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류 교수는 지난 22일 경기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46회 (사)관광경영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1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류인평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광경영학회는 한국의 관광을 이끄는 선도회로서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국의 관광인증을 본 학회에서 시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류 학회장은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학회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타 연관학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경영학회는 1997년 창립해 한국의 관광, 호텔, 외식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초를 쌓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학회는 관광 관련 최고의 연구재단 등재지 학회로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류인평 선임 관광경영학회장은 현재 관광경영학과 교수 및 국제교류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전라북도 туризм기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채수완 교수, 후학 양성 위한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의대 학생 장학금·연구 경쟁력 향상 위해 전달



전북대학교 채수완 교수(의대 약리학교실)가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채 교수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의대 학생들의 장학금과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수완 교수는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대학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학생들 역시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밑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수완 교수는 1978년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약리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전 북대병원 해외의료봉사 단장을 맡아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2004년부터 전북대병원에 국내 유일의 기능성식품 전문기관인 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표준화, 전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활성화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공로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기자

‘공감하고 감동하는 따뜻한 전북교육복지’ 교육복지사 직무연수 실시

도교육청,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 130명 대상 맞춤형 지원 위한 직무역량 향상 위해 진행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전북교육연수원에서 도내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조정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감하고 감동하는 따뜻한 전북교육복지”를 주제로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를 중심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복지사 직무연수는 교육복지사들의 학생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별 학생특성 파악, 학생특성별 효과적

지원방안, 사례회의와 수퍼비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교육복지 학교 문화와 교육복지사 역할, 독서토론, 공감 콘서트 등으로 펼쳐진다.

또 정병익 부교육감의 특강으로 교육복지사들의 노고와 열정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뜻깊은 시간도 준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교육복지가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육복지 학교 문화 만들기, 지역과 연계한 교육복지공동체 조성 등 의미있는 변화를 추진해 온 과

정과 내용을 담아 교육복지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감동하는 의미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도내 교육복지학교는 중점학교 125개교, 연계학교 215개교다.

도교육청은 교육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며 교육복지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현해 나가는 교육복지 학교 문화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대 합격자 배출

206명 합격·공무원 임용시험도 4명 합격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중등교원 양성의 산실이라는 명예를 다시 한 번 드높였다.

전북대 사범대학은 2020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206명(공립학교 180명, 사립학교 2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4명을 합격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사범대학 총 입학 정원이 215명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합격률이며,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는 지난해 합격자보다 18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전북권역에서는 166명(사범대 개설학과 기준)의 교사를 선발했는데 이 중 95명이 전북대 졸업(예정)자였다.

이는 전북권역 전체 합격자의 57%를 넘어서는 높은 합격률이다. 명확하게 합격 여부 파악이 어려운 비시험계열에서 추후 합격자가 확인되면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북대 사범대학 입학 정원이 타 거점국립대학보다 적고 지역선발 인원도 타 지역에 비해 적

은 상황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다.

전북대학교가 매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시험 대비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고시원인 인재등용관 내에 임용시험 준비반인 ‘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 학과별로 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범대 교수진이 직접 나서 그룹별로 학생을 지도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교육학 및 전공시험, 수업시연에서 면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원동력이 됐다.

권인택 사범대학장은 “우리대학이 매년 중등임용시험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실시

도교육청, 혁신학교 지원계획·전북혁신학교연대 안내 등 진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그랜드힐스턴 5층에서 혁신학교(졸업학교 포함) 186개교 교장, 교감, 혁신업무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380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지원계획과 전북혁신학교연대 안내 등 2020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1부에서는 ‘전북혁신학교연대’를 주제로 혁신학교 백서 출판기념회와 혁신학교 연대 선포식이 이뤄진다.

남원초, 덕일중, 장승초, 회현중 등 4개교와 대리초, 백석초, 장승초, 전주 중앙초, 회현중 등 5개교가 각각 혁신학교 영상 소개와 백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장은성기자

전북혁신학교연대 선포식에는 혁신학교 1기에서 10기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현판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교육공동체, 혁신학교와 전문직학습공동체 지원 등 ‘달라지는 2020 혁신교육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3부에서는 전북혁신교육 10년을 맞아 10주년 행사 계획 설명과 새로운 전북혁신교육에 대한 비전과 다짐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혁신학교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혁신학교, 학교 혁신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